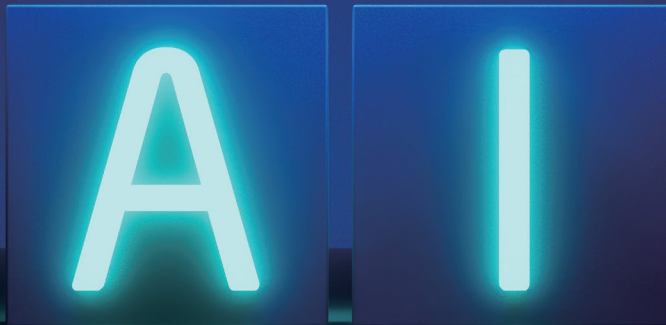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학원의 미래

Written By 「학원용 교수학습자료 플랫폼 CATS(www.cats4me.net) 단비교육, 염운정 연구소장



교육부가 2년 뒤인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하고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대한 시도는 2000년대 중반에도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교과서에 CD를 부록으로 배포하기도 했으나 사용성이 떨어져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결국 폐기 되었다. 현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웹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에 밀려 활용도는 떨어진다.

공교육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은 자리를 잡았다. 아직도 과외 교사나 방문교사가 집을 찾아가서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가 남아있지만 큰 흐름은 학생 주도의 스마트학습이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화상 과외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육에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다만 역할이 바뀐다. 교사가 교과서를 기반으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학습을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한다.

교사, 학교, 학원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누가 더 잘가르치는지 그들만의 세계에서 정보가 흐르고 생성되고 있다. 이제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공부한다. 책은 구입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런 학습형태를 보이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원과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도입된다면 교사와 학생간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나 역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공교육에서 이런 변화가 오는 시대에 학원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학원은 학교보다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관리해 주었기에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개발되고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의 학원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도 경쟁이 있는 한 학원은 다닐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의 역할을 바꾸게 될 확률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도 지금까지 봐왔던 학교와 교사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관리받는 것 이상으로 학교에 만족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이 되면 학원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은 예상이 된다.

학교 교육과 학원의 변화는 예정된 미래다.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학생이 바뀌었고 학생들의 공부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원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한다. 열정과 노하우로만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기에는 AI와 디지털은 너무나 큰 상대다. AI교과서를 거부하기보다는 학원은 더 앞서서 AI와 디지털을 활용하여 학부모 만족과 학생의 성적을 관리 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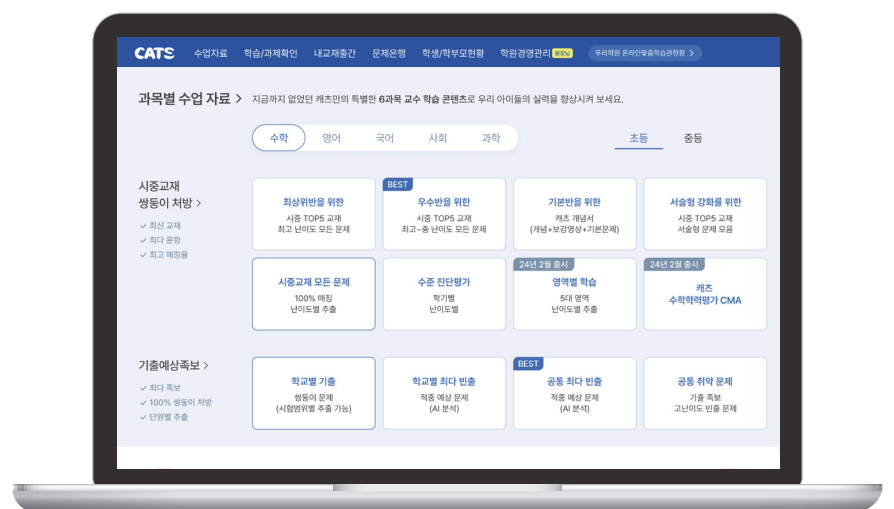
학원이 더 침단화 되어야한다.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학원도 대면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대면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AI 활용 수업이든 학생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채택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원수업은 재래식 수업이라는 인식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형성되면 위험하다.

대면수업은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시스템화되지 않고 개별 강사의 능력에 의존하는 학원수업이 학교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교칭 중심으로 역할을 비꿀 경우 오는 변화를 꼭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학원은 변화를 주도하는 프리미엄 교육기관이 되어야한다.

고객인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의 실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학원만의 온라인 맞춤 학습관을 운영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 처방과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학원만의 디지털 교재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수학이나 영어 과목만을 주력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어, 사회, 역사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과목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토탈교육 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사람들은 청진기로 진단하는 동네 병원보다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유능한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을 더 신뢰한다. 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기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반면 희망적인 소식은 고가의 최첨단 의료기기는 모든 동네 병원에서 갖추기 힘들지만,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원 온라인 플랫폼은 무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제 2025년으로 다가온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더불어 학원에서의 온라인 맞춤 교육 환경을 함께 준비해 보자.



▲ 1위 스마트 교육 기업 단비교육이 개발한 학원용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CATS. 고가의 초첨단 의료기기는 모든 동네 병원에서 갖추기 힘들지만,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원 온라인 플랫폼은 무료로도 활용 가능하다.